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12 pp. 430-438,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2.43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강은희, 정지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un-Hee Kang, Ji-Hyun Ju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각각의 매개효과 및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9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한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 두 정서 변인의 순차적인 매개효과에 대해서 입증하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으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대학생의 경우에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고, 정서표현양가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정서적 개입을 함으로써 상담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their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Seoul, Gyeonggi, and Incheon regions. A total of 292 participants completed the online surve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ROCESS Macro Model 6.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clarity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ird,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showed a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two emotional variables,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found that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continues to have a negative effect even after the children become university students. This suggests that counseling effectiveness can be enhanced by providing emotional interventions to increase emotional clarity and decreas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for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 more interpersonal problems due to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Emotional Clarity, Interpersonal Problem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Jung(Seoul University of Buddhism)
email: stophyun@hanmail.net
Received October 4, 2023 Revised November 7,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1. 서론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안정감과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며, 대인관계는 인간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다. 유아기에 형성된 대인관계는 성인기에도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1]. 어린시기의 부모-자녀 관계는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며 사회화의 기초를 이루는데[2],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가게 된다[3]. 또한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서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익히게 된다[4]. 이처럼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arber[5]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 부모 통제를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고, 심리적 통제를 불안정한 감정기복,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비난, 감정 불인정, 자기표현 제한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일관적인 방식으로 대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고,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를 비난하고, 자녀의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으며,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행동 통제는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과 행동에 기준을 가지고 규제, 감독 관리하는 것으로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켜 적응적인 발달을 돕는 반면[6],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적인 영역까지 억압을 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거나 감정 경험을 언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8], 자신의 정서경험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워진다[9].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자녀의 학업이나 일상생활 등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1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이 자녀의 자기 수용,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위험 요인임 알 수 있는데[13], 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과 통제는 성인기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는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5].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경쟁으로 인해 폭넓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에 진학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16]. 또한 대학생 상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정서·심리적 문제나 진로·학업상의 문제들도 결국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인식명확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8]. 부모의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19]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정서 표현을 억제하거나 표현하더라도 후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20],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행동으로 보고되었다[2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정서표현을 막거나 정서표현 이후에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등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녀가 정서표현을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정서표현양가성이 발달하게 된다[22].

Kennedy-Moore, Greenberg와 Wortman[23]이 제시한 정서표현과정모델을 바탕으로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정서표현양가성의 네 가지 변인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이 낮고,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경우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이 정서표현에 선행되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과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24].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욕구와 정서에 잘 반응하지 않고 애정을 철회하거나 미묘한 심리적 방식을 사용하여 통제하는데[7],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불안정한 대인관계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25].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인식명확

성을 낮추고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여 대인관계문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과도한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대학생들이 겪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정서 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대인관계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심리 상담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할 것인가?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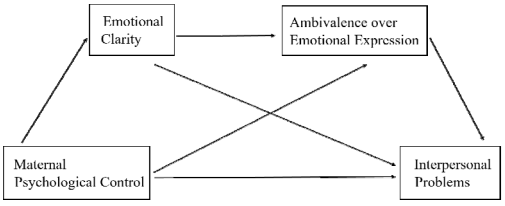


Fig. 1. The Study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녀 대학생 총 30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 대상 이외 지역에 표시한 14부를 제외한 29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83명(28.4%), 여학생 209명(71.6%)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37.3%), 2학년(31.2%), 4학년(24.0%), 1학년(7.5%)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지역은 서울(52.7%), 경기(24.3%), 인천(22.9%)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N=210)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83	28.4
	Female	209	71.6
Grade	1	22	7.5
	2	91	31.2
	3	109	37.3
	4	70	24.0
Region	Seoul	154	52.7
	Gyeonggi	71	24.3
	Incheon	67	22.9
All		292	100.0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5]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CS-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를 최명진과 김은정[26]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총 16문항으로, 언어적 표현의 제약, 감정의 무효화, 개인적 공격, 죄책감 유도, 애정 철회, 기괴한 정서적 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언어적 표현의 제약은 .835, 감정의 무효화는 .797, 개인적 공격은 .785, 죄책감 유도는 .679, 애정 철회는 .806, 기괴한 정서적 행동은 .872였으며 전체 척도는 .943으로 높게 나타났다.

2.2.2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등[27]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28]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원형척도(IIP-C: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를 김영환 등[29]이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통제지배(PA, 5문항), 냉담(DE, 5문항), 자기중심성(BC, 5문항), 사회적 억제(FG, 5문항), 비주장성(HI, 5문항), 과순응성(JK, 5문항), 자기희생(LM, 5문항), 과관여(NO, 5문항) 등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통제지배 .821, 자기중심성 .853, 과관여 .744, 냉담 .876, 사회적 억제 .892, 비주장성 .888, 과순응성 .845, 자기희생 .785, 전체 척도 .960으로 나타났다.

2.2.3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18]이 개발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MMS: Trait Meta-Mood Scale)를 이수정과 이훈구[30]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인식명확성(11문항),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7로 나타났다.

2.2.4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28문항으로 구성된 King과 Emmons[20]의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Questionnaire)를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31]가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 13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915,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841을 보였으며, 전체 척도는 .930으로 나타났다.

2.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와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 분석(Pearso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인식명확성(r=-.472)과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표현양가성(r=.463)과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표현양가성(r=-.457)과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낮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r=.674)와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r=.687)와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문제(r=-.620)와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Table 2. Correlation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emotional clar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N=292)

Variables	1	2	3	4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1			
Emotional Clarity	-.472**	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463**	-.457**	1	
Interpersonal Problems	.674**	-.620**	.687**	1

1.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Emotional Clarity 3.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4. Interpersonal Problems **p<.01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매개효과 검증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이용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인식명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46, p<.001).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설명력은 22%(R^2=.22)로 나타났다.

2단계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표현양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274, p<.001),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표현양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59, p<.001).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설명력은 29%(R^2=.29)로 나타났다.

3단계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303, p<.001),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303, p<.001),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83, p<.001).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아지며,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설명력은 68%(R^2=.6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전체효과(effect=.560, p<.001)와 직접효과(effect=.30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3.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95% confidence interval		R^2	F
					LLCI	ULCI		
Emotional Clarity	constant	4.34	0.94	47.21***	4.24	4.61	.22	83 .27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346	.038	-9.13***	-.421	-.27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constant	3.71	.31	11.93***	3.09	4.32	.29	58 .31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74	.048	5.66***	.179	.369		
	Emotional Clarity	-.359	.066	-5.43***	-.488	-.228		
Interpersonal Problems	constant	1.67	.25	6.82***	1.19	2.15	.68	207 .54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303	.033	9.19***	.238	.368		
	Emotional Clarity	-.303	.045	-6.77***	-.391	-.215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383	.038	10.09***	.309	.458		
Interpersonal Problems	constant	1.143	.089	12.83***	.967	1.318	.45	241 .69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560	.036	15.55***	.489	.631		

***p<.001

Table 4.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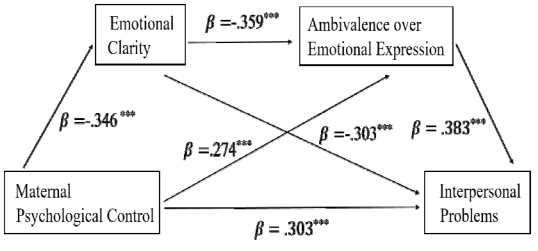
Classification	effect	se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effect	.560	.036	15.55***	.489	.631
Direct effect	.303	.033	9.19***	.238	.368

***p<.001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각각의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두 변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5와 Fig. 2에 제시하였다.

Table 5. Bootstrap Validation Results

Classification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LUCI
Total indirect effect	.258	.025	.209	.308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 Emotional Clarity → Interpersonal Problems	.105	.018	.073	.14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105	.023	.062	.151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 Emotional Clarit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048	.011	.027	.071



***p<.001

Fig. 2. Results of the No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of the study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인식명확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표현양가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인식명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과보호, 과잉통제와 애정철회는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22],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개입을 하거나 자녀의 감정과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구속하게 되면 자녀는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3].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졌으며[32],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적절히 대처할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33]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느낌, 정서, 사고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죄책감 및 수치심을 느끼도록 행동하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정서표현에도 어려움이 생겨 결국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겪을 수 있다[34]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낮으면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아지게 되

고, 이는 대인관계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반면[35],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다[36]는 선행 연구는 본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데, 본 연구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 두 정서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초기 성인기의 발달 과업인 건강한 대인관계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대학생의 심리치료에 있어서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고 정서표현양가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정서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잘 조절하여 진솔하게 표현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보고식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질문지를 통한 측정의 한계로 인해 주관적인 해석, 방어적 태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등으로 인한 편향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대학의 남·녀 대학생만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28.4%(83명), 여학생 71.6%(209명)으로 성별의 비율이 고르게 표집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남녀를 따로 모형분석을 한 결과,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및 성별 비율 등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의 영향을 따로 비교하지 않았다. 정서표현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음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의 각각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1953.

[2] S. J. Mi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Depending and Parental Attitudes", *General Theory of Ewha Education*, Vol.1, No.-, pp.273-281, 1990.

[3] H. R. Jeon, J. Y. Lee,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The Mediator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12, No.2, pp.5-18, 2014.

[4] R. Finzi-Dottan & T. Karu, "From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to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A path mediated by immature defense mechanism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94, No.8, pp.616-621, August 2006. DOI:http://dx.doi.org/10.1097/01.nmd.0000230654.49933.23

[5]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67, No.6, pp.3296-3319, December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31780

[6] B. K. Barber, J. E. Olsen & S. C. Shagle,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65, No.4, pp.1120-1136, August 1994. DOI: http://dx.doi.org/10.2307/1131309

[7] B. K. Barber & E. L. Harmon,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5-52, 2002. DOI: http://dx.doi.org/10.1037/10422-002

[8] E. J. Han, *The Influ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High-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valuation Fear and* Alexithymia,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47, 2015.

[9] J. R.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Supports for Autonomy and Psychological Control form the parents and Ego-Resilience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unseling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pp.33-34, 2017.

[10] M. J.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Highschool Students and Learned Helplessnes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3, 2017.

[11] J. Y. Ahn,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eongji University, pp.61, 2020.

[12] H. J. Kim, *The Influ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Internalized Shame,* Master's thesis,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pp.51, 2018.

[13] H. J. Shin, M. S. Ahn, "Perceive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erfectionism and the Need for Approval",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5, No.3, pp.621-641, 2013.

[14] H. W. Park, *Effects of the perceive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41, 2022.

[15] E. H. Erikson, Identity : youth and crisis, No.7, WW Norton & company, 1968.

[16] K. H. Ha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pp.1, 2012.

[17] B. H. Ah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Internalized Shame on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p.1, 2011.

[18] P. Salovey, J. D. Mayer, S. L. Goldman, C. Turney, & T. P. Palfai,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25-154, 1995.
DOI: http://dx.doi.org/10.1037/10182-006

[19] N. Eisenberg, R. A. Fabes, & B. C. Murphy,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67, No.5, pp.2227-2247, October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31620

[20] L. A. King & R. A. Emmons,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5, pp.864-877,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8.5.864

[21] Y. S. Baek, *The influ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Social Anxiet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pp.35, 2020.

[22] M. Mongrain & L. C. Vettese,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psychology Bulletin,* Vol.29, No.4, pp.545-583, 2003.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02250924

[23] E. Kennedy-Moore, M. A. Greenberg & J. Wortman, "Varieties of non expression: A review of self-report measures of emotional control" *99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1991.

[24] H. Y. Choi, D. G. Lee, K. H. Min, "The Role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the Link of Belief in Emotional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Vol.9, No.3, pp.1063-1080, 2008.

[25] J. J. Wood, B. D. McLeod, M. Sigman, W. C. Hwang, & B. C. Chu,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4, No.1, pp.134-151, 18pages, January 2003.
DOI: http://dx.doi.org/10.1111/1469-7610.00106

[26] M. J. Choi, E. J. Kim, "The Validation of Psychological Control Scale (PCS-YSR)",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32, No.2, pp.51-69, 2018.

[27]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aer, G. Ureno & V. S. Villasenor,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56, No.6, pp.885-892,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6.6.885

[28] L. E. Alden, J. S. Wiggins & A. L. Pincus,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5, No.3-4, pp.521-536, 1990.

[29] S. H. Hong, Y. G. Cho, J. H. Kwon, E. Y. Park, Y. H. Kim, Y. G. Jin,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1, No.4, pp.923-940, 2002.

[30] S. J. Lee, H. G. Lee,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Exploring the sub-factor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1, No.1, pp.95-116, 1997.

[31] H. Y. Choi, D. G. Lee, K. H. Mi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concept of ambivalence for Emotional Expression", *Korean Society of Survey Research*, Vol.2006, pp.147-154, 2006.

[32] J. M. Nam,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Negative Parent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Juvenile Delinquency: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ognitive Clarity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p.45, 2016.

[33] J. H. Kwo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Clarif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Master's thesis,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pp.42-43, 2007.

[34] J. J. Chang, J. M.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in Term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0, No.3, pp.697-714, 2008.

[35] K. H. Lee, B. H. Kim, "Interpersonal Ability: Comparison of Clusters by Emotional Clarity, Affect Intensit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2, pp.369-384, 2010.

[36] Y. H. Kim, *The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pp.47, 2019.

강 은 희(Eunl-Hee Kang) [정회원]

- 1996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아동학학사)
- 2023년 8월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관심분야〉
심리상담, 부모교육, 트라우마 치유

정 지 현(Ji-Hyun Jung) [정회원]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우울증, 불안장애, 성격장애